

전쟁 6개월 '지붕 없는 감옥' 가자지구 생지옥으로

사망자 3만3천명 중 어린이·여성 65%...하루 180명씩 숨져 230만 가자 주민 절반이 기아 직면...“850명 당 화장실 1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하마스와의 전쟁이 6개월간 이어지면서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가 극한 상태로 치닫고 있다.

그렇지 않아도 이스라엘의 통제로 '지붕 없는 감옥', '세계 최대 감옥'으로 불렸던 가자지구가 그야말로 '생지옥'으로 변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에 가자지구에서 사망자가 3만명이 넘으면서 참사가 벌어지고 있지만 전쟁의 끝은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인접 국가가 피난민 수용을 거부하면서 가자지구에 갇힌 주민 대다수가 재정적인 굶주림에 직면했으나 인도적 지원은 더디기만 하다.

◇ 가자지구 사망자 3만2천여명... 어린이·여성이 65% 달해

날로 악화하는 가자지구의 인도적 위기 해소와 인질 석방을 위한 국제사회의 휴전 압박이 거세지만 이스라엘은 공세의 고삐를 늦추지 않고 있다.

사상자가 속출하며 인명피해는 갈수록 늘어나 가자지구에서만 지난 3일(현지시간) 현재 3만2천975명이 숨진 것으로 집계됐다. 전쟁이후 하루에 약 180명 꼴로 사망한 셈이다.

사망자 가운데 어린이가 1만3천명을 넘고 여성이 약 8천400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65%에 달한다는 게 가자지구 보건부의 주장이다.

필립 라자리니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

구호기구(UNRWA) 집행위원장은 지난달 14일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서 가자지구에서 4개월간 숨진 어린이 수가 다른 세계 분쟁 지역의 최근 4년간보다 많다고 전했다.

요르단강 서안에서도 지난해 10월7일 이후 폭력 사태로 최소 453명이 숨졌고 이스라엘까지 합하면 전쟁 발발 이후 양측의 사망자는 3만5천명에 이른다.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희생된 유엔 직원과 언론인도 적지 않다.

UNRWA는 2일 엑스에서 "6개월 가까운 전쟁 기간동안 176명의 UNRWA 직원이 숨졌다"고 전했다.

알자지라 방송에 따르면 전쟁 발발 이후 지난달 15일 현재까지 가자지구 등지에서 취재 중 숨진 언론인은 팔레스타인인 96명, 레바논인 3명, 이스라엘인 4명 등 100명이 넘는다.

◇ 가자 주민 절반 기아 직면 세계은행과 유엔은 2일 공개한 보고서



재앙적 굶주림에 시달리는 가자지구 주민들이 식량을 배급 받고 있다.

에서 가자지구 전체 인구 230만명의 75%가 전쟁을 피해 피난했다고 집계했다.

그러면서 가자지구 주민 절반 이상이 심각한 식량 위기 상태인 기근에 직면해 있으며 전 인구가 극심한 식량 불안과 영양실조의 위기에 처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신체·정신적 건강에 대한

누적된 재앙적인 충격이 여성과 아동, 고령층, 장애인에게 가장 큰 타격을 입혔다"며 "아동의 경우 성장에 평생 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고 평가했다.

안토니우 구테흐스 유엔 사무총장도 앞서 지난달 18일 팔레스타인 주민 110만여명이 재앙적인 굶주림에 맞닥뜨렸 다면서 즉각적인 인도주의적 휴전과 구

호품 전달 보장을 촉구한 바 있다.

국제기구와 구호단체가 마련한 구호 물품 역시 이스라엘군의 검문과 통제로 가자지구로 제대로 유입되지 못하고 있다.

육로를 통한 지원이 이처럼 한계에 봉착하자 국제사회가 공중 투하 방식으로 구호품 전달을 시작했으나 이미 만연한 기아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우려가 제기된다.

이에 최근 바닷길로 대규모 구호 식량 전달이 이뤄졌으나 이를 주도하는 국제구호단체 직원 7명이 지난 1일 이스라엘의 공습으로 숨지면서 이마저도 중단됐다.

유니세프는 "국제 위생 기준은 화장실 1개당 최대 20명이지만 라파는 800명에 이른다"며 "사위시설은 1곳당 3천400명이 쓰는 꼴이며 기본적인 인권과 존엄성이 위협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한 대만 동부 화롄 지역에서 구조대원들이 무너진 건물에서 생존자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다. /EPA=연합뉴스

대만 강진 부상자 1천명 넘어...1천명 이상 산속 고립 추산

타이루거국가공원측, 입산자 등 고려해 고립 인원 추산

지난 3일 오전 대만 동부 해역에서 발생한 규모 7.2(미국·유럽 지진당국 발표는 7.4) 강진으로 현재까지 사망자 9명이 발생한 가운데 대만당국은 밤새 수색·복구 작업을 이어갔다.

4일 대만 중앙통신사에 따르면 중앙재해대응센터는 전날 오후 10시 기준으로

대만 전역에서 사망자 9명, 부상자 1천11명이 발생한 것으로 집계했다. 지진으로 인해 고립된 사람은 모두 143명이다.

사망자는 지진의 가장 직접적인 피해를 본 화롄(花蓮)현에서 모두 발생했다.

화롄현당국은 유명 관광지인 타이루거국가공원에서 4명, 추화고속도로 주

차장에서 1명, 다정수이터널 휴게구역에서 2명, 광산 지역에서 1명, 화롄현 시내 건물에서 1명 등 사망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타이루거국가공원 측은 공원 안에서 숙박한 사람이 직원·여행객을 합쳐 모두 664명이고, 전날 입산한 사람을 합치면 최소 1천명 이상이 산속에 고립됐다는 1차 추산을 내놨다. /연합뉴스

“日 기시다, 美 연설서 과거사 언급 없다”

中·러 겨냥해 美와 '국제질서 유지' 공헌 자세 보일 것

이달 초순 미국을 국빈 방문하는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오는 11일(현지시간)로 예정된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과거사와 전쟁에 대한 반성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굳혔다고 지지통신이 복수의 일본 정부 관계자를 인용해 지난 3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외무성 간부는 합동 연설에 과거사 반성이 포함될지에 대해 “일단락돼 있다”며 “이번 연설에서 언급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에서 패권주의 행동을 강화하는 중국과 러시아를 염두에 두고 미국과 일본이 ‘글로벌 파트너’로서 뜻을 같이하

는 나라와 함께 국제질서 유지에 공헌해 나가겠다는 자세를 보일 것이라고 통신은 전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지난달 5일 기시다 총리의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 계획을 알리면서 “국제사회가 여러 과제에 직면한 지금이야말로 미일의 강한 결속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기시다 총리는 2015년 4월 아베 신조 전 총리 이후 일본 총리로서는 9년 만에 미국 상·하원 합동 연설을 한다.

아베 전 총리는 2015년 연설에서 “우리(일본)는 전쟁(2차 세계대전)에 대한 깊은 반성의 마음으로 전후를 시작했다”며 “우리의 행위가 아

시아 국가의 국민에게 고통을 줬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는 그것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 이런 측면에서 역대 총리들에 의해 표현된 관점들을 계승하겠다”고 덧붙였다.

아베 전 총리는 당시 역대 담화를 관통하는 핵심 용어인 ‘식민지배와 침략’ 등의 표현이나 분명한 사죄를 언급하지 않아 과거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와 반성을 요구해 온 주변국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기시다 총리가 이번 연설에서 ‘사죄’는 물론 ‘과거사 반성’에 아예 언급하지 않는다면 역사 인식 측면에서 아베 전 총리 연설보다 후퇴했다고 평가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

‘세계 최고령 남성’ 베네수엘라 농부 114세로 별세

기네스 세계기록(GWR)이 세계 최고령 남성으로 인증한 베네수엘라의 농부 후안 비센테 페레스 모라가 지난 3일 114세를 일기로 세상을 떠났다고 AFP 통신이 그의 친척들과 현지 당국

자들을 인용해 전했다.

기네스 세계기록은 페레스가 112세 이던 2022년 2월 4일, 그를 생존해있는 세계 최고령 남성으로 인증한 바 있다.

페레스는 2022년 기준 11명의 자녀와

41명의 손주, 18명의 증손주 등 자손을 뒀다.

1909년 5월 27일 베네수엘라 타치라주의 한 도시에서 태어난 그는 어릴 때부터 아버지와 형제들과 함께 농사 일을 했으며 사탕수수과 커피 수확을 도왔다고 기네스는 전했다. /연합뉴스

60플라워
Flower

축하화환 3단

근조화환 3단

전국전지역6만배송 (기타낙후지역 배송비 추가요금발생)

Tel. 010-9984-0151 동협 박배성 302-0316-649511

상무지구 2,000평 실내스포츠공원

파라드시티

헬스

14일동안 CALORIE BAR lounge for Diet & Detox care DANIEDEL Skin & Body Aesthetic THE 14 DAYS Beauty Solutions

테니스

골프

062 374 0088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64 영무에다움 상가 2층